

〈2003 서울 북아트 전 - 아트 북 아트〉

미서美書, 그 아름다움의 세계

지난 연말부터 2004년 2월 1일까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2003 서울 북아트 전 - 아트 북 아트〉전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책을 지식이나 정보전달의 매체로 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미술, 디자인 개념까지 도달하면서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 500여 종을 소개한다. 책을 주제 겸 질료로 한 국내외 작가들의 미학적, 조형적 접근으로 완성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20여 개국 300여 작가의 아트 북 및 북 아트와 미술 작품들은 총 네 가지 주제- '역사 속의 아트 북 아트', '예술로서의 책, 책으로서의 예술', '아티스트 북', '북 아트'로 나눠 소개됐다.

김소월의 최초 시집 《진달래꽃》(매문사 초판, 1926년, 234쪽), 김동인의 《감자》(한성도서 초판, 1935년, 189쪽) 등 희귀본들이 출품되어 우리 근대문학 출판의 일면을 소개하는가 하면 1970년대 들어서면서 책을 소재로 한 디자이너 서기훈, 정병규, 안상수, 금누리, 이나미 씨의 개성 있는 북 아트 작업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한 책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는 기회도 제공했다. 또 최근 프랑크푸르트 북 페어에서 화제가 되었던 무하마드 알리의 전기 사진집(독일 타첸 출판사에서 출간된 《GOAT-Greatest Of All Time》은 펼쳤을 때 가로 세로가 100센티미터×50센티미터에 무게가 34킬로그램이나 되는 책으로 사진 1만 장을 담고 있다. 주문판매로 1만 부 한정 출간된 이 책의 초판 1,000부는 알리의

자필 사인을 담아 더욱 인기를 끌었다. 이미 애서가, 장서가들의 수집목록에 올라 있을 정도다)과 '줍쌀 책'으로 불리는 작은 책부터 아라키, 다빈치, 마릴린 몬로 등을 소개하는 초대형 서적까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는 책의 조형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책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찾았다는 데서 의미를 가지며 국내에서는 생소한 아트북(Art Book) 장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까지 두루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민**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